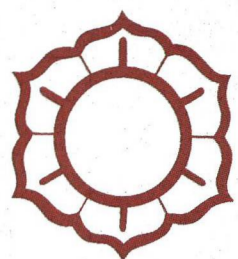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2001년  
10월 1일  
월요일  
제27호

**이 달의 종조법설**  
작은 것을 숭상하면 사상이 작은 인물이 되고 또 작은 인물을 숭상하면, 큰 것을 숭상하면 사상이 커져서 큰 인물이 되고 또 큰 인물을 숭상하면, 그러므로 작은 유상보다 큰 무상을, 유한한 현실보다 무한한 진리를, 약한 인간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을 믿고 크게 살아야 할 것이다.

발행인 : 혜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하경목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제21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제2의 창종을 위한 용맹정진을



제21주기 종조멸도절 추선 불사가 지난 9월 8일 오후 2시30분 총지사 3층 회관에서 록정 종령과 혜암 총리원장, 서울 경인교구 스승 그리고 신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선불사가 거행되었다. 지성 재무부장의 사회로 영전제막과 접화를 시작으로 개식사, 헌화 및 훈향 정공, 추선사, 참회가·오대서원가, 무상 계독송·천수경독송, 유가삼밀, 종조님 육성법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록정 종령은 추선사에서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후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먼일

한편 혜암 총리원장은 "원장님께서 이 종단을 창종하시어 몸소 이끌어오신 세월보다 열반 후의 세월이 더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끝목할만한 발전 보다 오히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 대상사님께서 교설하신 바와 같이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야 한다는 재생의세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종조법에 대한 진정한 추선불사요, 유훈에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제2의 창종을 위한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 혜암 총리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위촉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제10기 자문위원으로 혜암 총리원장은 지난 9월 6일 잠실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0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받았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과 정책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부측 보고와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결의문 채택으로 진행됐다.

### 마산 운천사 청신화 지수 열반



1976년 마산 광혜사원당 시절부터 진언행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신도들과 함께 해온 청신화 지수께서 총기 30년 9월 4일 새벽 2시경 세연을 다하시고 세수 62세로 열반에 드셨다. 청신화 지수께서는 평생 중생교화와 전법의 일선에서 진언연송의 공덕을 널리 퍼셨던 분으로서 창종 초기 마산 광혜사원당(현 운천사) 주교의 소임을 맡으신 이래 원외회의 의원, 제6대, 제7대 중앙종의회 의원을 지내셨다. 청신화 지수의 열반을 맞아 총리원은 종헌의 규정에 따라 장례위원회(위원장 정경심, 집행위원장 원송, 고문 원봉, 의강)를 구성하고, 장례는 교구장장으로 치러졌다. 9월 10일 오전 10시 빈소가 마련된 운천사에서 유가족 및 전국 스승, 교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하였다. 49제는 오는 10월 22일 운천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 총지캠페인 자비의 실천덕목 布施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어 구난보시(救難布施)하였는가, 과객 불러 먹여 재워 행인보시(行人布施)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보시(越川布施)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보시(活人布施)하였는가, 높은 산에 불당 지어 중생보시(衆生布施)하였는가, 목마른 이 찬물주어 시수보시(施水布施)하였는가」 예전에 경기도 지방에서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향두기의 한 대목으로 살아 생전 망자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가 하고 묻는 구절이다. 불경을 한문으로 옮길 때 범어「다나」를 포시(布施)로 의역했는데 포시라 읽지 않고 보시라 읽는 것은 널리 베푼다는 뜻의 보시(普施) 혹은 은혜에 보답하여 베푼다는 뜻의 보시(報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예는 문헌 혹은 생활양식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송나라 사신이 고려를 다녀간 후 쓴 견문기 「고려도경」에 보면 여름에 고려의 수도 서경의 거리에는 집집마다 시원한 물 단지를 땅에 묻어 두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원한 물을 베푸는 시수보시(施水布施)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남대문과 동대문 앞에는 팔도에서 올라온 많은 노숙자가 항상 노숙하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 조석으로 반대떡 한 수레를 싣고 와서는 「청계천변 안동 권씨 빈자 보시오!」「회동 정씨 정자나무집의 빈자 보시오!」하며 노숙자들에게 반대떡을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요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자비의 실천덕목으로서 보시의 전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같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의 후심한 배불(排佛)정책과 현대인의 이기주의로 보시의 전통은 생활 속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자신들의 손익만 따지는 오늘의 우리들, 댓가 없이 주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현대인들, 보시라는 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과감하게 타파하시며 보시를 자비의 최고 실천덕목으로 삼았던 불교를 생활화하여 보시를 경전이나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옛 선인들처럼 생활의 한 부분으로 행하고자 가르치며 보시정신을 생활 속으로 끌어내신 종조 원정 대종사님의 멸도절이 몇 일 전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불자로서 자비실천의 최고 덕목이라고 하는 보시를 어느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천은 아찌 못하고 있어도 보시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개념이라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좋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에..

#### 죽비소리

##### 자작자수(自作自受)

인과(因果)를 사무치게 알고 실천해야 한다. 들판에 익은 벼는 숙여지고 저 큰 물은 잠잠히 흘러가며, 얻은 자는 무연(無緣)이 자신 속으로 돌아가나니 그는 무얼 타고 돌아가는가. 그윽한 본래의 도리(道理)란 어렵지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교묘한 말에 있지도 않다. 여기에 매우 평범하고 쉬

운 하나의 길이 있으니 자작자수(自作自受), 스스로 씨 뿌려서 스스로 거두는 도리이다. 즉 인과를 빼지려고 사무치게 알아 나와 남을 대하고 지난날과 앞날을 함께 바라보면서 수행해 가다보면 헛된 욕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무명업식(無明業識)은 저절로 끊어지리라. 그러나 사람마다 이를 안다하여 우습게 여기니 그래서 높은 구름 위를 거니는 그대들에게 묻노라. 그대는 정녕 소치는 사람인가? 그런데 어찌해서 남의 소만 세고 있는가? (총지화)



불교 총지종

## 제58회 추계강공

종조 원정종사님이 흥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교화와 포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계강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단산하 전 스승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0년 10월 16일(화)~19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총지사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 주관 : 불교총지종 총리원

- 제58회 강공 주요 일정표
- 16일(화) :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
- 17일(수) : 교양교육, 종단헌화, 종의회
- 18일(목) : 열반스승 추선불사, 승단총회, 관불수련
- 19일(금) : 견학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혜암











현목의 세상읽기



# 광기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기를

참으로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거대한 건물물을 향해 돌진하는 여객기와 화염 그리고 붕괴되는 건물. 그 안팎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는 그야말로 지옥에 다름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 만하여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도시, 뉴욕시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졌던 그 도시가 불과 몇 십분만에 인류사 최악의 참사를 기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런 참사를 전 세계에 동시하게 지켜볼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아직 출근시간이었고 우리나라는 저녁밥상을 물리고 난 후라는 시차로 인해 생기는 거리감 외에는 너무도 생생한 중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참사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미국 정부는 고층건물이 붕괴되기도 전에 '테러'라고 발표하였다. 어떻게 그런 단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졌는지 궁금한데 그 이후 현재까지 저 가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의 한 인물이 이번 사태의 배후 조종자라는 점만큼은 요지부동이다. 그리하여 전면적인 공습을 결정하였고 곧 대규모 폭격이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이 활자화되어 대중 앞에 다가갔을 때는 이미 아프간은 초토화되어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분노에 가가 질린 세계 각국은 앞을 다투어 미국의 보복을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세계 각국에 대해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적으로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서늘퍼런 협박조의 성명을 연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

##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지름길

미국이 재채기만 하여도 병원에 입원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이 나라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나. 미국이 요청하지 않아도 미국이 찍은 나라를 공습할 때 우리의 군대를 보내야 할 판인데 말이다. 하긴 지난 90년 미국이 걸프전을 감행하던 당시에도 적잖은 돈을 동맹국의 분당국 명분으로 준 판에도 있고하니...

이번 사태를 맞아 미국은 그야말로 국제경찰국가로서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나라,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인 나라라는 인상은 오간데없다. 오로지 국제경찰국을 해코지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보복과 응징의 결의에 가득찬 그네 나라의 단결에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손에 손에 성조기를 들고 응징을 다짐하는 그네들에게서 그간 감춰왔던 파시즘의 광분을 보게 된다. 그네들의 뉴욕지도에서 세계무역센터가 지워진 만큼 이참에 아프간을, 아니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은 아예 세계지도에서 없애버리려는 전쟁의 광기를 본다. 이것이 그네들이 그간 입에 발린 듯 읊어대던 자유, 평화, 공존의 본질이었는가.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일치단결은 미국내 유색인종에게도 총구를 겨냥하고 있다. 참사 직후 미국내에서는 아랍계로 보이는 미국인을 살해하였는가 하면 미국 의회의 병력동원안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흑인계 여성하원

의원은 살해 위협을 받아 경찰의 보호하에 있다. 어느 상품선전 문구에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하는 소심'은 미국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듯 하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던 그 목소리나 행동이 이번에는 발 불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광분이 이번 참사에 대한 순간적인 반작용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숨겨져 있던 본성일수도 있다. 자본주의 문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던 '야만'의 폭발이라고나 할까.

혹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70년대 중반 바로 뉴욕 전역에 정전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발전소에 벼락이 떨어져 그랬던 것 같다. 일시적인 정전이 끝나고 난 뒤의 뉴욕은 그야말로 정전을 치른 뒤의 모습이었다. 밝은 빛 아래에서는 세계 제일의 도시 사람으로서 점잖은 체 했던 그네들이 정전으로 온 시가지가 칠흑같은 어둠에 잠기자 일시에 강도로 돌변 상점을 약탈하고 강간을 비롯한 온갖 강력범죄가 순식간에 도시를 휩쓸었다.

문명으로 감춰진 그네들의 야만은 그렇게 나타난다. 부하외동이라는 말이 있다. 막말로, 어지간히 힘깨나 쓴다는 놈이 나서면 그 하수인들까지 눈을 부라린다는 말이다. 미국의 광분에 덩달아 일본이 쌍수를 들고 나왔다. 오히려 더 실천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일본은 미국의 보복전에 기꺼이 일본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올해들어 부쩍 극우파의 준동이 격심해진 일본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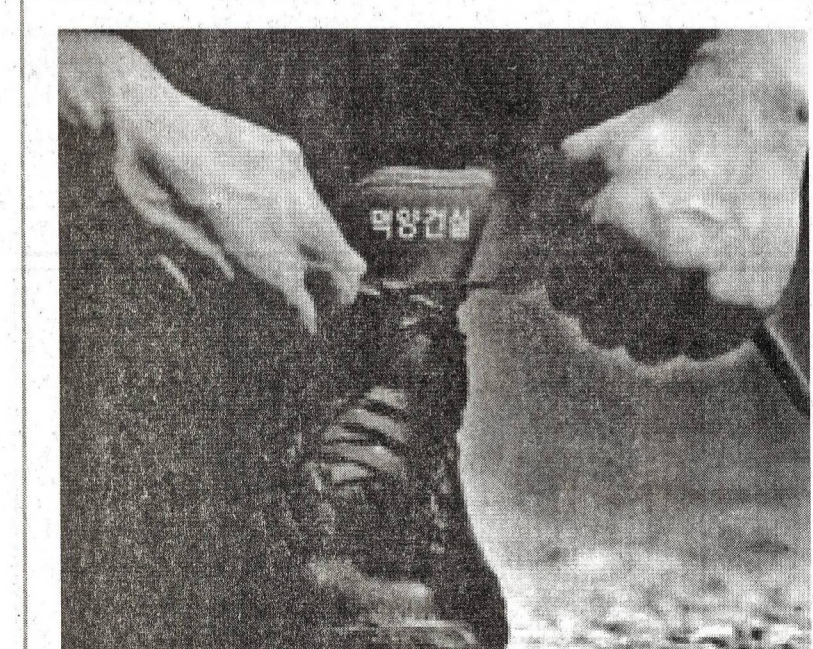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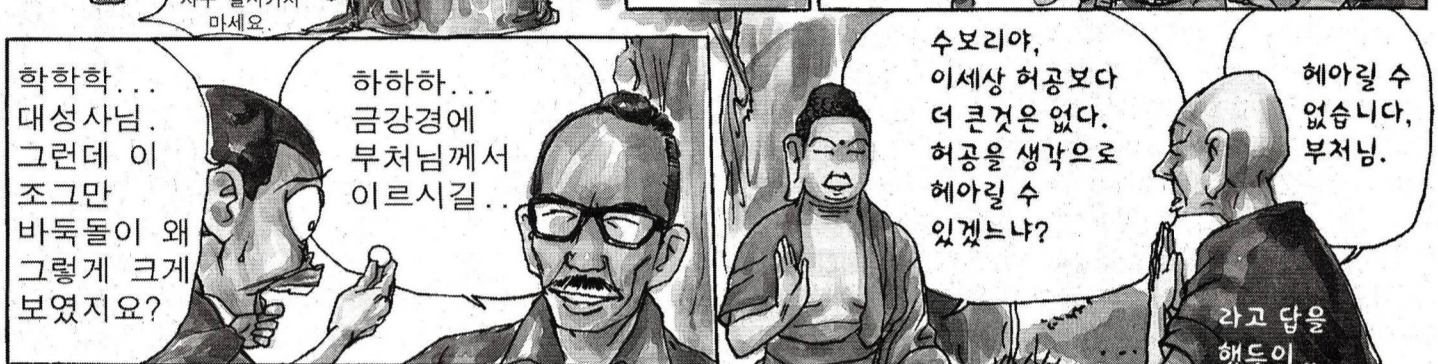
이다. 미국사태 직후부터 이스라엘은 연일 팔레스타인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절대적 지지국인 미국이 공격 당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충성의 표시일까? 확실히 세계는 지금 광기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도 그 광기는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그 광기의 배후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을 군수산업재벌들의 모습과 지금 척박한 땅일지라도 저희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저 가난한 아프간의 난민들 모습이 극명하게 교차한다.

"대왕이시여,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는 왕이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로써 관찰해 다스리시길 일을 생각해 본 뒤에 다스려야 합니다. 다섯가지란 첫째로 사실에 의지하고 사실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고 둘째로 때에 의지하고 때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고 셋째로 도리에 의지하고 도리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고 넷째로 부드러운 말에 의지하고 거친 말에 의지하지 않음이고 다섯째로 자비로운 마음에 의지하고 성냄에 의지하지 않는 일입니다." [니건 자경에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이 보복전에 앞서 잠시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그 공습에 드는 돈을 가난한 나라에 보시하길 바란다. 미국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도 당연하지만 그간 미국의 공습으로 희생된 무슬림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추모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 간절하다. 그것이 자비요 때를 생각함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반야심경

제화 글/그림: 정수일



## \* 創造 革新 跳躍 \*

#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 고객을 제일로 삼겠습니다
- 전통기술과 신기술을 함께하여
-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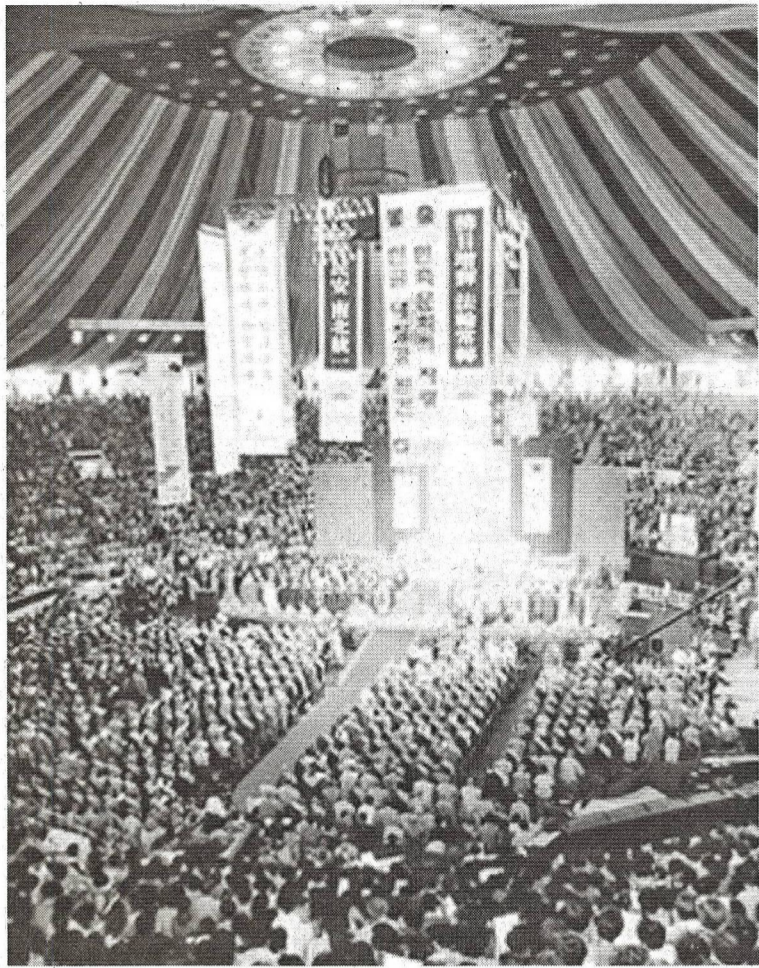
<p>• 고객제일주의</p>	<p>• 환경우선</p>	<p>• 전통한식기술</p>	<p>• 앞선 신기술</p>	<p>• 인정받는 기업</p>
-----------------	---------------	-----------------	-----------------	------------------

## 德陽建設株式會社 대표이사 李相斗

본사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11-20번지 전화 : (055)759-4267 FAX : (055)759-4269 E-mail: dyks@chollian.net  
 부산사무소 : 부산시 진구 범천동 854-9번지 전화 : (051)643-2261 FAX : (051)643-2055 E-mail: nocya@netsgo.com

# 한글대장경 회향법회 봉행

## 팔만대장경, 318권 한글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나



“그 첫 단계로써 한글대장경보급과 전산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여러 어른들의 원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종단과 정부, 후원회원 등에 감사함을 표했다.

회향법회가 끝난 뒤에는 김성녀 씨의 사회로 국립국악원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축하공연을 벌였다.

### 美 테러에 대한 불교 26개 종단 성명 발표 종교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미국 테러 사태에 대해 조계종을 비롯한 26개 종단으로 구성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스님)가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12일 발표된 성명서는 “무차별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이번 테러행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 대한 천인공노할 도전 행위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며, 생명을 살상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며, 종교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이라며 “한국의 이천만 불자들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라도 혼란을 수습하고 힘을 모아 이겨내시기를 바라마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가재난으로 공포와 분노에 처해있는 미국 국민들에게서조차 참작할 마음을 되찾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도 혼란을 수습하고 힘을 모아 이겨내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국민들에게 우방인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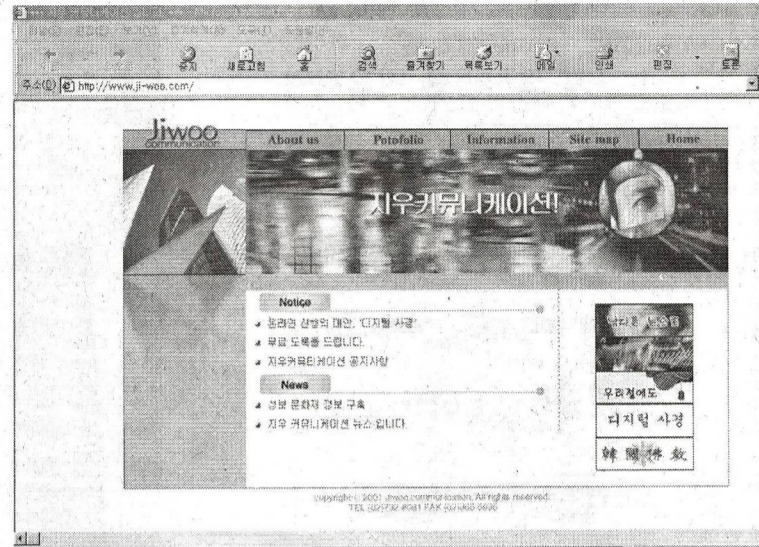
# 디지털 사경법회 사이트 이수트라(Esutra)

## 인터넷으로 '사경 법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

불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열린불교(www.openbud.com)를 운영하는 ㈜지우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사경법회 사이트인 이수트라(Esutra)를 개설하고,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318권에 대한 '디지털 사경법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우는 이수트라 개설의 의미를 인터넷 시대에 맞는 온라인 수행 방향의 제시와 '한글 대장경 보급' 및 불자들의 경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최대 318개 사찰 및 개인 불자의 접속을 받아 디지털 사경법회를 열며 참여 사찰에는 한글대장경 1질(318권)과 특수 제작된 책장을 기증하고 이를 통해 등록된 '한글 대장경'은 역경원과 협의하여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트라는 1단계 사경, 2단계 교정, 3단계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경이 끝난 후 모든 불자의 교정을 거쳐 공개되며, 공개와 함께 전문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한글대장경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향후 1~2년 안에 '듣는 한글 대장경'도 계획하고 있다.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봉행 지난 9월 5일 오후 1시30분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에서 한글대장경 318권 완간을 축하하는 회향법회가 대한불교 조계종과 동국대학교 주최로 거행됐다.

이날 법회는 1964년 7월 21일 동국대개원 이래 37년 만에 3백18권을 모두 완간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어서, 교계 안팎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법회에는 불교 총지중 해암 통리 원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 등 원로스님과 정·관계인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식전행사인 예경식에 이어 진행된 회향법회에서는 법전스님은 “이제 우리도 우리말 대장경 3백18권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이는 제불제조(諸佛諸祖)가 찬탄할 일이고, 호법선신(護法善神)이 환희할 일이고, 이 시대 사부대중들이 참으로 용약(踊躍)할 일”이라는 내용의 법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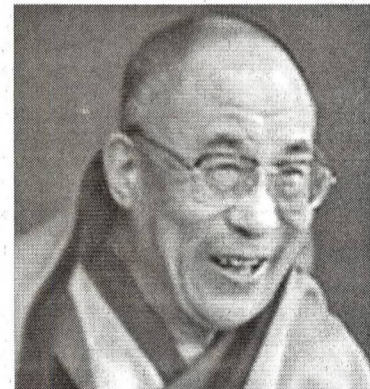
동국대경원장 월운스님은 회향사에서 “의적보다 더 무서운 마음속의 삼독(三毒)을 씻어내는 비결은 부처님 말씀에 다라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길밖에 없다”며

### 미국 사태에 대한 한국 불교도의 입장

먼저 크나큰 충격에 휩싸여 슬픔과 고통을 받으신 미국 국민 여러분께 한국의 이천만 불자들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무차별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이번 테러행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 대한 천인공노할 도

# 달라이라마 부시대통령에게 서한 전달

## 폭력은 폭력의 순환만을 증가시킬 뿐



전세계를 경악시킨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뉴욕 세계 무역센터 테러사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9월 12일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위로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달라이 라마는 “큰 재앙을 불러온 테러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티베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긴 고통의 시간동안 미국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우리 모두가

무자비한 폭력을 긴 안목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은 폭력의 순환만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폭력의 원인이 되는 증오의 마음과 분노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 문제를 대하는 미국 부시대통령과 당국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 두레와 떠나는 이달의 문화기행

### ▶북한산성 문화유적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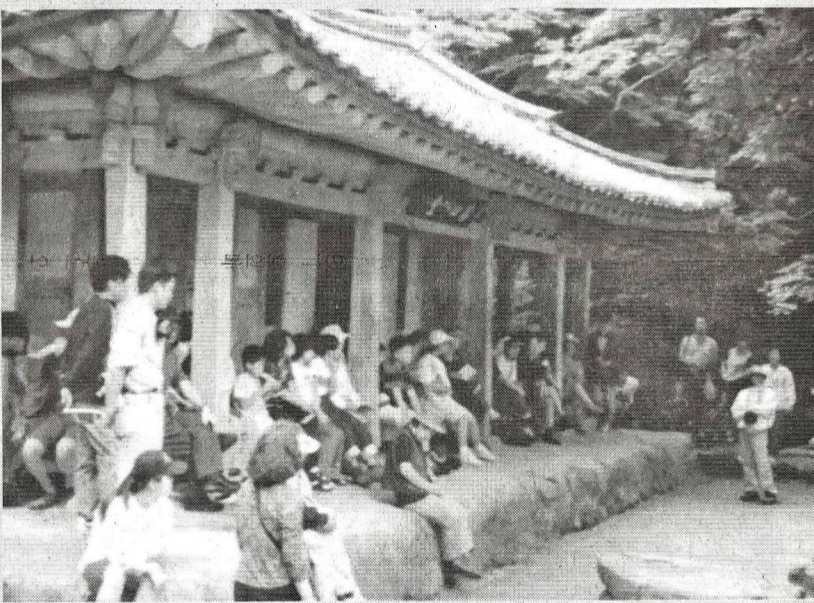
날 짜 : 2001. 10. 7(일) 09:00  
출 발 : 구파발역내 1번 출구 매표소 앞(지하철 3호선)  
답사지 : 서암사지·대서문·중성문·중흥사지·태고사·동장대·대동문 등  
준비물 : 등산차림·도시락·식수·필기구 준비

### ▶가을빛으로 물드는, 승복도를 찾아서

날 짜 : 2001. 10. 13(토) 14:30-10.14(일) 19:00(1박2일)  
집 합 : 동인천역 출구 바깥, 오후 2시 30분(지하철 1호선 인천행)  
주 제 : 바닷가·조계잡이·계잡이·가을꽃과 백사장 등  
준비물 : 호미·갈퀴리·채집통·세면도구 등

### ▶백범영 화백과 돌아보는 인사동 가을 나들이

날 짜 : 2001. 10. 21(일) 10:00  
출 발 : 호암갤러리 정문 앞(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바깥)  
답사지 : 호암갤러리(분청사기 명품전Ⅱ-한국미의 원형을 찾아서)·인사동 갤러리 순례



### ▶이천 도자기 축제를 찾아서

날 짜 : 2001. 10. 25(목) 09:20  
출 발 :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지점)  
참 고 : 생활 도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단풍 속에 묻힌 가을 산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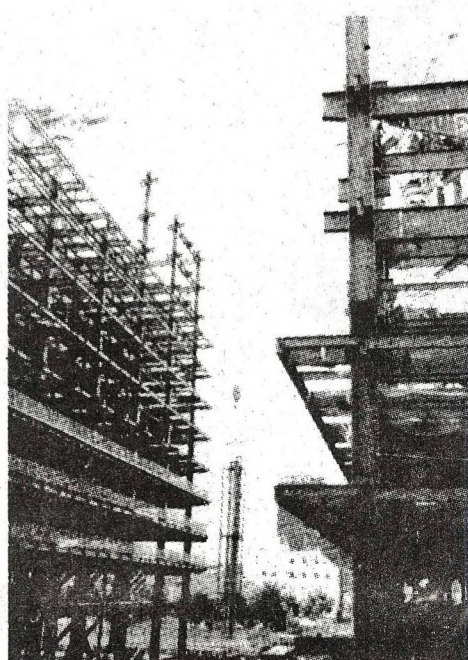
날 짜 : 2001.10. 28(일) 07:00  
출 발 :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지점)  
답사지 : 내장사·천곡사지 등  
▶기차타고 떠나는 늦가을 역새발 기행  
날 짜 : 2001.11. 4(일) 07:30-21:20  
출 발 : 청량리 기차역 2층 대합실(지하철 1호선 바깥)  
답사지 : 강원도 정선 민동산  
참 조 : 왕복 기차이용·등산차림·식수준비·왕복 3시간 산

행·협한 코스는 없습니다.

참가문의 : 전화(712-5812.3) 예약 후 온라인으로 입금  
http://www.ngodoore.com  
e-mail : doore@ngodoore.com

# 옥천건설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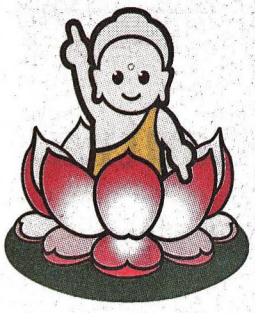
건물의 심장과 같은 설비 공사를 옥천에 맡겨주세요!  
25년 장인의 정신으로 성실히 시공하겠습니다.



### 주요 사업

- APT 기계설비공사
- 오피스텔 기계설비공사
- 아파트형 공장 기계설비공사
- 병원 기계설비공사
- 숙박시설·사우나 기계설비공사
- 수영장 기계설비공사
- 사찰 설비공사

• 1000㎡ FLOWER 공법시공 경험  
• PFP 공법 시공 경험  
• 25년의 설비시공 Knowhow



#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시절...



총지중이 창중된지  
 어언 30년, 짧지 않았던  
 세월 속에 잊혀졌던  
 그때 그시절을 떠올리며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중당시와 어려웠던  
 초창기 교화일선에 계셨던  
 스승님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살펴봅니다.  
 지나간 추억 속에서  
 또다른 활기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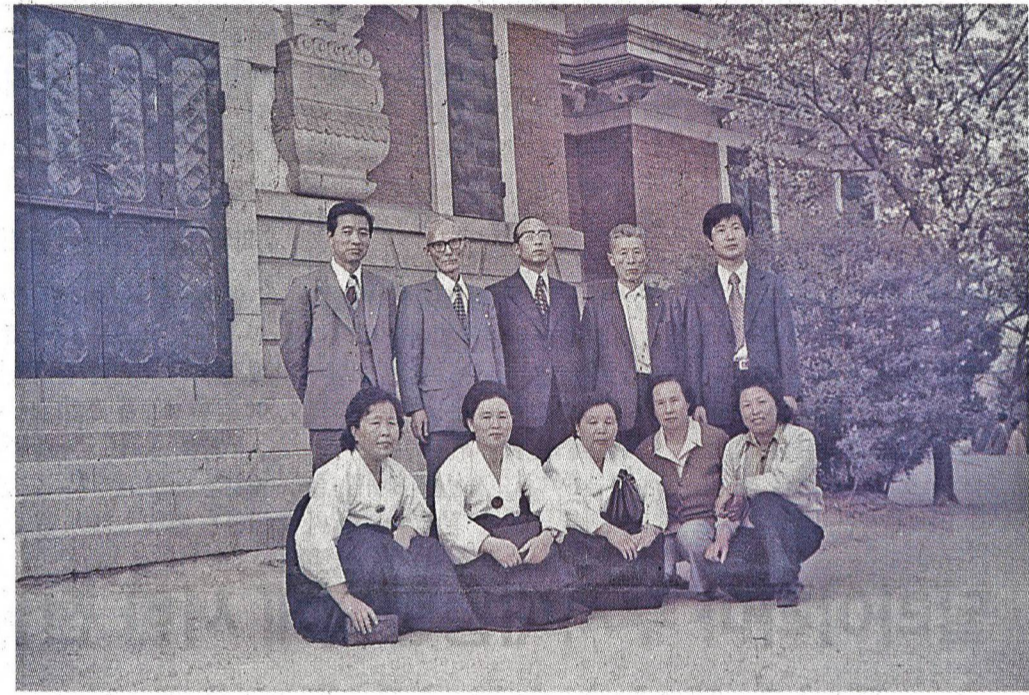
〈편집자주〉



▲1978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총지사 서원당에서 제11회 강공회를 개최하였다. 원정중조남  
 께서 (불교총전 중 화합과 평등, 융화 편을 강설하고 승단의 단합을 강조하였으며, 6화경(六和敬)과 6  
 합상(六合相)을 해설하고 계시다.



▲1974년 10월 3일. 경주학생회 결성식을 경주선교부(현 국광사)에서 거행하고 회기를 수여함과 동시  
 에 원정 대성사로부터 회기수여식을 거행하고 있다.



▲1973년 신정회 창립 후 창공궁 비원 앞에서 기념 촬영 장면이다. 원정 대성사 오른쪽으로 이회춘  
 (신정회 초대 서울 지회장) 각자와 환당 대성사, 심인행 전수(왼쪽 아래부터), 법장화 전수, 복지화 전  
 수의 모습이 보인다.



▲1978년 4월 19일 중앙총회  
 와 재단이사회 합동회의가 통  
 리원(현 총지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성도절(현 창  
 교절)을 양력 12월 24일에 행  
 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지  
 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사말인  
 [성도합시다], [성도하십시오]  
 등 성도를 권장하고 맹세하는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은 오른쪽부터 정각원 전수,  
 대지행 전수, 법장화 전수, 묘  
 행정 전수이다.



▲1977년 10월 29일 총지서원당을 이전, 현 정각사 위치에 사원을 신축하고 한공불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동시에 정각사로 개칭하였다. 뒤로 총지중 중립학교인 동해중학교가 보인다.



▶1978년 8월 30일 부산 정각  
 사에서 삼매야 계단을 개단하  
 고 결연관정수계식을 봉행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온 교도 110  
 명에게 삼매야계를 수계하고,  
 결연관정을 봉행했다. 수계 대  
 상 교도는 교도회간부, 법장로,  
 전교 등이었다. 이날 관정불사  
 에서 교도들은 수계증을 수여  
 하고 입사선서문을 낭독했다.  
 관정수계식에서 계단이사리는  
 전계이사리에 원정 대성사, 교  
 수이사리에 특정 대성사께서  
 맡았다. 사진은 결연관정을 시  
 작하기 전의 모습이다.



▲1978년 5월 14일 포항 수인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